

# “완득이와 국수를 아시나요?”

다문화, 영화·드라마 중심으로 성큼 들어오다

“TV 드라마에는 ‘국수’가, 영화에는 ‘완득이’가 있다.”

다문화가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화와 드라마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다. 단일 민족 신화가 깨지고 ‘외국인=백인’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도 옛날얘기가 되면서 안방극장과 스크린에서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의 오늘을 조명하는 얘기와 캐릭터가 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시청률 30%를 넘어선 KBS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에서 한국인 아버지-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

생 ‘국수’가 주요 배역으로 등장한다. 청춘스타 유아인은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선 영화 ‘완득이’에서 한국인 아버지-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연기했다. 과거 일부 양념 요소로 그려지거나 대단히 특수한 상황으로 묘사되던 혼혈이나 이주노동자에 관한 얘기가 더 이상 변방의 소재에 머물지 않고 어느새 극의 중심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 ‘다문화 신부’에서 진화하다

최근 대중문화가 묘사하는 다문화 얘기는 원래 ‘다문화 신부’에서 진화했다. SBS ‘황금신부’와 ‘하노이 신부’ 등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의 사랑 얘기는 이미 몇 년 전에 안방을 파고들어 다문화 조명에 선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들 작품은 멜로드라마의 틀 안에서 이색적인 사랑 얘기에 초점을 맞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최근 선보이는 작품들은 그런 사랑의 결과, 다시 말해 정착 과정 이후의 얘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보다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오작교 형제들’의 주인공 4형제 중 맏형인 태식(정웅인 분)은 자신이 과거 필리핀에 머물 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나타난 까만 피부의 국수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드라마는 그러나 태식과 그 가족이 국수를 받아들이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밀도 있게 그리며 호응을 얻었다.

영화 ‘완득이’의 주인공 완득이는 자신의 엄마가 살아 있고, 그것도 필리핀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성장한 고등학생이다. ‘어쩐지 피부와 생김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의 ‘출생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완득이는 황당함 속에서도 지금껏 포기하고 있



다문화가 영화와 드라마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다. 청춘스타 유아인은 영화 ‘완득이’에서 한국인 아버지-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연기했다. 사진제공\_ CJ 엔터테인먼트



영화 '씨니'는 정의를 외치던 골수 운동권이었던 주인공의 오빠가 중년이 되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체불해 법정에서 사는 얘기를 담아 역설적인 현실을 꼬집었다. 사진제공\_ CJ 엔터테인먼트

던 엄마의 품에 외락 안겼다.

유치원을 무대로 하는 EBS 유아 드라마 '꾸러기 천사들'은 혼혈 아이 3명을 주연으로 등장시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있다. “넌 왜 피부가 까매?” “나 재랑 놀기 싫어” 등의 대사가 등장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할퀴기도 하지만 드라마는 이내 치유의 과정을 거쳐 화합을 조명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로 이끈다.

KBS 농촌드라마 '산너머 남촌에는'에서는 이장 집 며느리가 베트남 출신이고 올 1월에 개봉한 영화 '페이스 메이커'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케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라토너 '봉조'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한다.

### 이주노동자의 애환도 적극 묘사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애환도 적극 그려지고 있다. 비단 '완득이' 뿐만 아니라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제작된 '반두비'와 '방가방가'에 이어 지난해의 히트 영화 '씨니'에도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녹아 있다. '씨니'는 관객 7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개봉한 감독판에서 주인공 나미(유호정)의 오빠가 한때는 정의를 외치던 골수 운동권이었지만 중년이 된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체불해 법정

에서 에피소드를 집어넣어 역설적인 현실을 꼬집었다.

'완득이'는 필리핀에서 배울 만큼 배운 완득이의 엄마가 한국에 와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허드렛일이나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얘기를 그렸다. 그녀가 변변한 신발 하나 사서 신지 못하는 현실, 이주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일하다 손가락이 잘려도 보상해 주기는커녕 쓸모없어졌다며 자기 나라로 쫓아내는 악덕 고용주도 등장했다.

'반두비'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방가방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위장 취업한 청년 실업자 '방가'가 이전까지는 몰랐던 이방인의 부당한 현실을 체험하는 내용이다. 예전 같으면 인권영화, 독립영화로나 분류될 법한 이들 영화는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며 영화계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오작교 형제들'의 박성수 총괄PD는 “그동안 소외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던 사람들이 실은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이고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똑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드라마에 잘 녹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드라마, 영화 제작자들은 앞으로도 다문화 얘기가 사회상을 반영해 작품 속에 계속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

윤고는 문화부 기자 pretty@yna.co.kr